수의적 보족어의 실현 메커니즘
- 보족어의 수의성은 예측 불가능한 개별 어휘적 특성인가?

최군호(고려대)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발렌츠 연구의 핵심 문제점은 보족어 Ergänzung와 첨가어 Angabe[1]의 구분문제이다. 직관적으로는 구분 가능한 보족어와 첨가어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준을 발렌츠 연구자들은 아직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2].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구분 방법으로 삭제 실험 Eliminierungstest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방법 역시 특정한 보족

---

1) 발렌츠 연구에서 '보족어'와 '첨가어'는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었다. '보족어'는 보통 'Ergänzung'으로 표기되지만, Brinkmann(1971[2])은 보족어를 위해 "Mitspieler"라는 용어를, Heringer(1967)는 "Ergänzung" 및 "Ergänzungsbestimm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Helbig/Schenkl(1973[2])은 초기에는 Tesnière(1959)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족어를 "Aktant"로 명명하였고, Welke(1988)와 Storrer(1996)는 생성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Komplement"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첨가어'는 일반적으로 'Angabe'로 표기된다. Helbig/Schenkl(1973[2])은 초기에 "freie Angab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영어권 혹은 영어권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예를 들면 Fanselow/Felix 1987)에서는 첨가어를 "Adjunkt"로 명명한다. Engel(1980)은 Tesnière(1959)의 용어인 "actant"와 "circonstant"을 각각 "Aktant"와 "Angabe"로 번역하였다.

2) 보족어와 첨가어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방법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삭제실험 Elilminierungstest' (Grebe 1973[3]: 478 이하), '임의의 첨가 가능성 freie Hinzufügbarkeit' (Helbig/Schenkl 1973[2]: 33 이하), '독립된 문장으로의 환원 가능성 Zurückführung auf einen selbständigen Satz' (Steinitz 1969), '대화실험 Dialogtest' (Sgall 1978: 221 이하), '하위 범주화 실험 Subkategorisierungstest' (Helbig 1982: 29), 'und-zwar 실험' (Helbig 1982: 29) 등등. 그러나 이러한 실험들은 각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보족어와 첨가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보족어와 첨가어 구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Vater(1978), Helbig(1982), Welke(1988), Storrer(1992)등을 참조하시오.

어들의 수의성 Fakultativität, 바꾸어 말하면 특정한 보족어들은 첨가어와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족어의 수의성에 대한 근원적 고찰은 보족어와 첨가어 구분이라는 발렌츠 이론의 핵심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잠재적 능력으로서의 발렌츠 Valenzpotenz와 발렌츠의 구체적 실현 Valenzrealisierung 양자를 구분하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 das zweidimensionale Valenzmodell, 그리고 Bierwisch(1983, 1987, 1988)와 Bierwisch/Lang(1987)에서 소개된 소위 "2단계 의미론 das zweistufige Semantikmodell"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잠재 발렌츠 Valenzpotzenz"와 "발렌츠 실현 Valenzrealisierung"이라는 개념은 Ágel(1994)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원적 발렌츠 모델에서는 발렌츠가 언어성분들의 실현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언어성분들의 실제적 실현에는 발렌츠이외에도 발렌츠와 무관한 통사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인지적 제반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Bierwisch는 2단계 의미론에서 의미구조 semantische Struktur와 인식구조 konzeptuelle Struktur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양자를 구분한다. 의미구조에서는 어휘들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만이 부여되며, 인식구조에서 문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어휘들의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3].

이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4] statische Lokalisierungsverben에 수반되는 장소 보족어 lokale Ergänzung를 보기로 하여 보족어의 실현 메커니즘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3) 이원적 발렌츠 모델과 2단계 의미론에 대해서는 최규호 1999a, 1999b를 참조하시오.

4) 독일어에서 장소동사 Lokalisierungsverben는 *gehen, kommen, laufen* 등과 같은 동적 장소동사 dynamische Lokalisierungsverben와 *stehen, liegen, sitzen* 등과 같은 정적 장소동사 statische Lokalisierungsverben로 분류될 수 있다. 동적 장소동사는 흔히 이동동사 Bewegungsverben로, 정적 장소동사는 위치동사 Positionsverben로 명명된다.

이때 보족어의 수의성은 기존의 발렌츠 연구자들이 가정했던 것처럼 언어 학습시 개별 동사별로 일일이 학습해야하는 예측 불가능한 개별 어휘적 특성 Idiosynkrasie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비판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특정 보족어의 수의성은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보족어 비실현의 다양한 유형

동사에 의해 요구된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보족어가 반드시 수의적 보족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몇몇 경우는 보족어의 수의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해당 보족어의 비실현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단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족어 비실현 유형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연구 대상을 한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보족어의 수의성과는 관련이 없는 몇몇 경우들을 예시해 보겠다.

독어학에서 소위 공 주제(Null-Topik)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현상에서, 원래는 동사에 의해 요구된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 때의 보족어 비실현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보족어의 수의성과는 무관하다.

(1a) Den habe ich schon aufgeweckt. →
(1b) Hab' ich schon aufgeweckt.
(Jacobs 1994: 304)

위의 보기 (1b)에서 직접 목적어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동사 aufwecken에 수반되는 보족어 자체의 수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통사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1b)와 같은 통사 구조에서 4격 목적어는 동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며, 이 같은 생략은 특수한 조건하에서, 즉 반드시 정동사 앞의 전장 Vorfeld에서만 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장에서는 문제없이 생략 가능한 4격 목적어를 중장 Mittelfeld에서 생략하게 되면 문법성이 의심스러운 (2b)같은 문장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 될 수 있다(Jacobs 1994 참조).

(2a) Ich habe den schon aufgeweckt. →
(2b) ?Ich habe schon aufgeweckt.
(Jacobs 1994: 304)

독일어에서는 공 주제 현상이외에도 특정 구문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 동사의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는 다양한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3a) Maria liest das Buch.
(3b) Das Buch wird gelesen.

능동문의 주격 보족어는 일반적으로 수동구문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생략된 보족어의 수의성과는 무관한 것이다[5]. 왜냐하면 거의 모든 타동사의 경우 수동구문에서 능동구문의 주격 보족어로 실현되는 동작주 Agens가 동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생략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중립구문 Mittelkonstruktion[6]에서도 동작주는 실현되지 않는다.

(4) Das Buch liest sich schnell.

---

5) 수동구문에서 생략 가능한 동작주 Agens의 발렌츠 성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몇몇 발렌츠 연구자들 (Helbig/Schenkel 1973², Helbig/Stepanowa 1981², Tarvainen 1981 등등)은 수동구문의 동작주를 보족어 (즉, 수의적 보족어)로 간주한다. 그러나 Korhnen(1977), Sadzinski(1989)같은 발렌츠 연구자들은 임의의 첨가어로 파악한다. Steinitz(1992)는 양자의 견해를 모두 반영하여 수동구문의 동작주를 독특하게 "Argument-Adjunkt"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6) 중립구문은 독일어로 Mittelkonstruktion, Medialkonstruktion, mediale Konstruktion 등으로 불린다. 중립구문에 대해서는 Vater(1988)를 참조하시오.

원래는 동사에 의하여 실현이 요구된 특정한 보족어가 수동구문과 중립구문에서 실현되지 않는 현상은 공 주제 현상과 마찬가지로 보족어 자체의 수의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동구문, 중립구문이라는 독일어의 특정한 구문들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다.

이 밖에도 독일어에서 몇몇 동사들의 경우 평서문에서는 실현이 요구된 보족어들이 명령문에서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7] (Fries 1987 참조).

(5) Peter gibt dem Mann die Zeitung.
(6) *Peter gibt dem Mann.
(7) *Peter gibt die Zeitung.

(8) Gib die Zeitung!
(9) Gib mir!
(10) Gib!

위의 보기 (8)-(10)이 보여 주듯이 독일어 명령문에서는 문맥에서 유추가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혹은 양자 모두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geben 동사에 수반되는 보족어 자체의 수의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명령문이라는 특수한 통사 구문과 아울러 문맥에서의 유추 가능성이라는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동사에 의해 요구된 보족어가 보족어 자체의 수의성과는 무관하게 실현되지 않는 그 밖의 다른 경우들이 관찰된다.

---

7) Heringer(1967: 15)는 geben동사에 수반되는 3격 보족어와 4격 보족어가 특정한 문맥을 전제한다면 평서문에서도 생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Vater 1978: 12 참조).

(11) Ich gebe ihm 50 DM.
(12) Ich gebe 50 DM.
(13) Ich gebe.

Heringer(1967: 15)는 위 문장 (12)는 예를 들면 '헌금'과 같은 특수한 맥락에서 그리고 문장 (13)은 "Gibst du oder nimmst du?"와 같은 질문의 대답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14) USA-Verteidigungsministerium fordert.

(Baskević 1987: 155)

위의 보기 (14)는 신문의 표제어이다. 신문 표제어는 일반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압축해서 표시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적·기능적 이유로 인하여 신문 표제어에서는 동사에 의해 요구된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족어의 비실현은 보족어 자체의 수의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문 표제어라는 특정한 형태의 텍스트 유형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공 주제를 비롯한 그 밖의 다른 보기들이 예시하는 보족어의 비실현은 일반적으로 생략 Ellipse이라는 개념으로 명명된 현상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보족어의 수의성 Fakultativität과는 다른 현상이다.

위의 보기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소위 어휘적 생략 lexikalische Ellipse으로 명명된 현상에서도 원래는 동사에 의해 요구된 특정한 보족어의 비실현이 관찰된다[8].

(15a) Die Henne legt Eier.

(15b) Die Henne legt.

(16a) Die Pilze riechen schlecht.

(16b) Die Pilze riechen.

(17a) Benimm dich anständig!

---

8) 아래의 보기 중 (15)번 문장은 Helbig/Schenkel(1973²: 53)에서, (16)번과 (17)번 문장은 Steinitz(1969: 19 이하)에서, 그리고 (18)번 문장은 Vater(1978: 10)에서 유래한 것으로 Vater(1978: 10)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발렌츠 연구에서 어휘적 생략이라는 현상은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언급되었다 (예를 들면 Heringer 1967, Steinitz 1969, Helbig/Schenkel 1973², Vater 1978, Nikula 1978, Welke 1988, Dentler 1990, Ágel 1991 등등).

(17b) Benimm dich!

(18a) Die Suppe schmeckt gut.
(18b) Die Suppe schmeckt.

위의 보기 (14)-(18)에서 제시된 어휘적 생략의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은 보족어는 문맥과는 상관없이 항상 명백하게 유추될 수 있다. 이러한 보족어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항상 내포되어 함께 이해된다[9]. 따라서 (a)문장들과 (b)문장들은 의미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족어의 비실현역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순수한 형태의 보족어의 비실현과는 관련이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연구대상, 즉, 보족어의 비실현이 특정구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보족어 자체의 수의성과 관련된 경우는 아래의 보기에서 관찰된다.

(19a) Peter ißt die Suppe.
(19b) Peter ißt.

(20a) Maria singt ein Lied.
(20b) Maria singt.

(21a) Hans liest die Zeitung.
(21b) Hans liest.

위의 보기 (19)-(21)에서 보족어의 수의성은 각각 essen, singen, lesen동사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형태의 보족어 수의성

9) 이러한 맥락에서 Jacobs(1994)는 "특수화된 내포 보족어 spezialisierte implizite Argument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4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를 가지고 이 동사들이 요구하는 장소 보족어의 실현 메커니즘, 즉, 언제, 어떤 조건하에 장소 보족어가 실현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에 앞서 우선 3단원에서는 보족어 수의성의 본질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3. 보족어 수의성의 본질

3.1. 수의성의 정도에 따른 보족어의 하위 분류

3.1.1. 의무적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

일반적으로 발렌츠 연구에서는 보족어가 생략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생략될 수 있는 보족어를 수의적 보족어 fakultkative Ergänzung로, 생략될 수 없는 보족어를 의무적 보족어 obligatorische Ergänzung로 구분한다.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아래 보기 (22)번 문장에서 동사 heiraten의 목적어는 수의적 보족어로, (23)번 문장에서 동사 aufwecken의 목적어는 의무적 보족어로 간주된다 (Jacobs 1994: 284 참조).

(22a) daß er morgen jemanden heiratet →
(22b) daß er morgen heiratet

(23a) daß er versehentlich jemanden aufweckt →
(23b) ??daß er versehentlich aufweckt
(Jacobs 1994: 284)

많은 발렌츠 연구자들은 이 같은 의무적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 구분의 유래를 Helbig/Schenkel(1973^2)에서 찾고 있다. Helbig/Schenkel(1973^2)은 일차적으로 보족어와 첨가어를 구분한 후, 이차적으로 보족어 내부에서 생략 가능성에 따라 의무적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비록 Helbig/Schenkel(1973^2)처럼 의무적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

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보족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Tesnière(1959: 161, 238 이하)는 인식하였고,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의적 보족어의 구체적인 보기도 예시하였다:

> 동사의 발렌츠가 항상 보족어들에 의하여 점유되어, 동사가 소위말해 포화 될 필요는 없다. 특정한 발렌츠는 점유되지 않고 비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2가 동사 singen의 경우, *Alfred singt ein Lied* 대신에 *Alfred singt* 처럼 두 번째 보족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
> Es ist im übrigen nie erforderlich, daß alle Valenzen eines Verbs durch ihren jeweiligen Aktanten belegt sind und damit das Verb sozusagen saturiert ist. Gewisse Valenzen können unbesetzt oder frei bleiben. So kann das divalente Verb *singen* durchaus ohne zweiten Aktanten verwendet werden, etwa wenn man *Alfred singt* statt *Alfred singt ein Lied* sagt.
>
> (Tesnière 1959: 161)[10]

3.1.2. 의무적 보족어의 세분화

특정 보족어의 수의성에 대한 견해가 모든 발렌츠 연구자들에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독어 동사 helfen처럼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동사의 경우에도 해당 보족어의 수의성은 발렌츠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파악되기도 한다. Vater(1981)같은 학자는 helfen에 수반되는 3격 목적어를 의무적 보족어 obligatorische Ergänzung로 간주하는 반면에 Engel/Schumacher(1978[2])는 생략 가능한 수의적 보족어 fakultative Ergänzung로 간주한다[11].

이러한 맥락에서 몇몇 발렌츠 연구자들은 보족어를 의무적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로 구분하는 이분법에 의문을 품고 보다 세분화된 보족어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

10) 본 논문에서 Tesnière(1959)는 Engel(1980)의 독일어 번역판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인용문의 쪽수는 독일어 번역판의 쪽수이다.

11) 보족어의 수의성 Fakultativität문제는 보족어와 첨가어의 구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발렌츠 연구에서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Gansel 1993: 269 참조).

예를 들면, Pasch(1977)는 특정 보족어는 의무적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 양자 사이의 경계에 위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험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보족어의 하위분류를 시도하였다.

Pasch(1977: 23)에 따르면 "Was tut er gerade?" 및 "Was ist gerade mit ihm?"이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동사에 의해 요구된 보족어의 생략이 가능하다면 그 보족어는 수의적 보족어이다. 반면에 생략이 불가능하다면 의무적 보족어이다. 따라서 아래의 보기 (24)와 (26)의 동사 essen과 schauen에서 생략된 목적어는 수의적 보족어이고 나머지는 의무적 보족어이다.

(24) Er ißt.
(25) *Er sieht.
(26) Er schaut.
(27) *Er schenkt.
(28) *Er verwöhnt.
(29) *Er durchdenkt.
(30) *Er wohnt.
(31) *Er versieht.

(Pasch 1977: 23 이하)

Pasch(1977: 24)는 계속해서 의무적 보족어를 하위분류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위하여 화법 조동사 können을 첨가하는 실험을 하였다. 즉, 문장에 können을 첨가하고 해당 보족어를 삭제했을 때, 그 문장이 현재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사건을 의미하고, 이때 해당 보족어가 수의적 보족어가 아니라면 그 보족어는 "비교적 의무적 보족어 relativ-obligatorischer Aktant"이다.

(24a) Kann er essen?
(25a) Kann er sehen?
(26a) Kann er schauen?
(27a) Kann er schenken?

(28a) Kann er verwöhnen?
(29a) *Kann er durchdenken?
(30a) *Kann er wohnen?
(31a) *Kann er versehen?

(Pasch 1977: 24)

위의 보기에서 (24a)-(28a)까지는 가능하지만 (24a)와 (26a)는 수의적 보족어이므로 (25a), (27a) 그리고 (28a)에서 생략된 보족어가 비교적의무적 보족어이다.

마지막으로 Pasch(1977)는 추가적으로 절대적 의무적 보족어 absolut-obligatorischer Aktant를 분류하기 위하여 대조구문 Kontrast에서 보족어를 생략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24b) Er ißt nicht, sondern er trinkt.
(25b) Er sieht nicht, sondern er hört (nur).
(26b) Er schaut nicht, sondern er schnuppert.
(27b) Er schenkt nicht, sondern er empfängt.
(28b) Er verwöhnt nicht, sondern er wird verwöhnt.
(29b) Er durchdenkt nicht, sondern er handelt impulsiv.
(30b) Er wohnt nicht, sondern er haust.
(31b) *Er versieht nicht, sondern er befreit.

(Pasch 1977: 24)

대조구문에서 보족어의 생략이 가능하고, 생략된 보족어가 수의적 보족어가 아니라면 이때의 보족어는 비교적 의무적 보족어이다. 반면에 (31b)에서처럼 위의 세 가지 실험 모두 불가능하다면 이때 생략된 보족어는 절대적 의무적 보족어이다.

Pasch(1977)는 Helbig/Schenkel(1973[2])이 보족어를 의무적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로 2분화 한데 반하여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수의적 보족어, 비교적 의무적 보족어, 절대적 의무적 보족어 등으로 3분화하였다[12]. 구체적

실험을 통한 Pasch(1977)의 이 같은 시도는 분명 당시까지는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보족어의 다양한 수의성의 등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Helbig 1982: 40 참조), 발렌츠 이론의 최대 문제점중의 하나인 수의성의 본질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Pasch(1977)는 발렌츠 실현층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실현형태를 어휘부에 기재된 발렌츠 층위의 현상으로 파악하여 보족어의 하위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잠재적 능력으로서의 발렌츠와 구체적 실현 층위 사이의 일대일 대응을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13]. 이와 같은 분석은 오히려 보족어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분류함으로써 발렌츠이론이 갖고있는 최대 장점중의 하나인 보족어와 첨가어 구분의 단순·명료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아마도 발렌츠 연구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Pasch(1977)의 새로운 제안은 발렌츠 연구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3.2. 선택적 발렌츠로서의 수의성?

본 단원에서는 최근에 보족어의 수의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독특하게 해석하는 Jacobs(1994)의 연구를 서술하고 그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 보고자한다.

Jacobs(1994)에게 보족어의 수의성이란 어휘부 Lexikon에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발렌츠를 의미한다[14]. 이 때의 추가된 발렌츠는 원래의 발렌츠에

12) Pasch(1977)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Blume(1993)는 보족어를 "비탄력적인 보족어 nicht-variable Ergänzung", "제한적으로 탄력적인 보족어 eingeschränkt variable Ergänzung", "무제한적으로 탄력적인 보족어 uneingeschränkt variable Ergänzung" 등으로 하위분류 하였다.

13) 이 비판에 대해서는 최균호(1999a)에 기술된 이원적 발렌츠 모델의 이론적 토대를 참조하시오.

14) 엄밀하게 말하면 Jacobs(1994)의 견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Rosengren(1970: 56)은 한 동사가 여러 개의 상이한 발렌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Jacobs(1994)가 말한 "선택적 발렌츠 Alternativvalenz"의 본질을 인식하였다.

비하여 해당 수의적 보족어 한 자리가 줄어든 축소된 발렌츠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수의적 보족어를 수반하는 동사 heiraten은 어휘부에서 다음과 같은 2개의 선택적인 통사적 발렌츠를 갖는다.

(32) SYN-VAL_1: /nom/akk
(33) SYN-VAL_2: /nom

위의 표기형태에서 SYN-VAL은 통사적 발렌츠 syntaktische Valenz를 나타내며 /nom과 /akk은 각각 1격 Nominativ과 4격 Akkusativ을 의미한다. 따라서 (32)는 제1발렌츠로서 heiratien이 통사적으로 2개의 보족어를 요구하며 이때 요구된 보족어는 각각 1격과 4격의 형태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통사적으로 제2발렌츠를 표기하는 (33)은 어휘부에 기재된 heiraten의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발렌츠로서 1격 형태의 보족어 하나만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 heiraten은 제1발렌츠에 비하여 4격 보족어가 축소된 형태이다.

아래의 문장 (34)는 2개의 보족어의 실현을 요구하는 (32)번의 제1발렌츠에 상응하는 문장이고 문장 (35)는 1개의 보족어의 실현을 요구하는 (33)번의 축소된 제2발렌츠에 상응하는 문장이다 (Jacobs 1994: 296 참조).

(34) Peter heiratet Gerda.
(35) Peter heiratet.

Jacobs(1994)의 시도는 기존의 발렌츠 연구에서는 보족어의 수의성을 파악할 때 다양한 발렌츠 실현형태가 구분되지 않고 단순히 괄호를 이용하여 어휘부에 하나의 형태로 뒤섞여 있었던 것을 어휘부에서 각각 분리해서 고찰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고찰 방식은 결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비판의 출발점은 Jacobs(1994)가 동일한 동사를 위해 어휘부에서 SYN-VAL_1와 SYN-VAL_2라는 상이한 2개의 선택 가능한 발렌츠를 가정함으로써 양자를 의미론적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Jacobs

(1994)는 SYN-VAL$_1$와 SYN-VAL$_2$에 각각 상이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과연 Jacobs(1994)가 가정한대로 위의 문장 (34)와 (35)에서 동사 heiraten의 의미가 서로 상이할까? 동사 자체의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34)와 (35)에서 동사 heiraten의 의미는 동일하다. 즉, (34)와 (35)에서 heiraten이 표현하는 차이는 의미론적 층위의 문제는 결코 아니며, 차이가 있다면 기껏해야 인식론적 층위에서의 차이일 것이다[15]. 그리고 그 차이가 문맥과 상호 작용을 하는 인식론적 층위에서의 차이라면 굳이 이 차이를 어휘부로 끌어들여 어휘부에서 여러 개의 선택적인 발렌츠를 가정할 이유가 없다. Jacobs(1994)는 보족어의 수의성이 야기하는 다양한 발렌츠 실현 형태를 어휘부 자체의 현상으로 파악하여 어휘부에 여러 개의 선택적 발렌츠를 가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어휘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이 제안한 것처럼, 어휘부에는 하나의 발렌츠만 가정하고, 동시에 문맥과 상호 작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실현형태를 인정하며, 이와 아울러 특정한 실현 형태를 야기하는 규칙 및 법칙성을 규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시도가 어휘부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며 경제적일 것이다.

Jacobs(1994)가 제안한 어휘부에서 다양한 선택적 발렌츠의 존재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견해로는 동일한 동사의 여러 변이형 사이에 진정한 의미론적 차이가 존재할 때만 어휘부에 다양한 선택적 발렌츠를 가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보기로 독어 동사 leben을 들 수 있다.

(36) Der Patient lebt in Berlin. (= wohnen)

(37) Der Patient lebt (noch). (= lebendig sein)

위의 보기 (36)과 (37)이 예시하듯이 동사 leben은 두 개의 서로 상이한

15) 의미론적 층위와 인식론적 층위의 차이에 대해서는 Bierwisch(1983, 1987, 1988)와 Bierwisch/ Lang(1987)을 참조하시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사 leben은 어휘부에서 상이한 두 개의 선택적 발렌츠를 갖는다. 동사 leben이 (36)에서처럼 '~에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보족어를 두 개 요구하는 2가 동사이다, 반면에 leben이 (37)에서처럼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1가 동사로 간주된다. Jacobs(1994)의 표현 방식을 빌어 동사 leben의 발렌츠를 표기하면, leben은 어휘부에서 다음과 같은 2개의 선택적인 통사 발렌츠를 갖는다

(38) SYN-VAL_1: /nom/pp
(39) SYN-VAL_2: /nom

3.3. 보족어의 수의성은 예측 불가능한 개별 어휘적 특성인가?

Helbig/Schenkel(1973^2)은 보족어의 수의성을 전적으로 해당동사의 개별 어휘적인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Helbig/Schenkel(1973^2)에서는 각각의 모든 동사에 괄호를 이용하여 수의적 보족어를 표기함으로써, 해당 보족어가 의무적 보족어인지 수의적 보족어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표기방식은 이후 발렌츠 연구에서 일반화되었고, Helbig/Schenkel(1973^2)이외의 다른 발렌츠 사전(예를 들면, Engel/Schumacher 1978^2, Schumacher (Hrsg.) 1986, Schröder 1993 등등)과 그 밖의 많은 발렌츠 논문에서도 동일한 표기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Helbig/Schenkel(1973^2)을 비롯한 기존의 대부분의 발렌츠 연구에서는 보족어의 수의성 여부만을 표시하였을 뿐,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동사에 의해 요구된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Storrer(1996: 225)에 의하면 이 같은 발렌츠 연구의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은 Tesnière(1959)에 기인한다. Tesnière(1959)에 의해 소개된 의존문법 Dependenzgrammatik은 주로 이미 제시된 문장의 구조를 기술하는 "분석문법 Analysegrammatik"의 성향이 강하다. 이 같은 분석문법적 연구풍토에서는 동사에 의해 요구된 보족어가 실제로 실현되는지 혹은 어떤 조건하에서 실현되는지의 여부는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이 같은 연구 성향은 후의 발렌츠 연구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고 따라서 보족어

의 일반적인 실현 조건을 규명하는 문제는 발렌츠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 졌다.

보족어의 수의성은 Helbig/Schenkel(1973[2])을 비롯한 대부분의 발렌츠 연구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각각의 개별동사에 일일이 표기해야하는 개별 어휘적인 특성인가? 아니면 간단한 원칙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특성인가?

Helbig/Schenkel(1973[2]: 11)은 외국인 독일어 학습자들은 보족어의 수의적 용법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주장을 근거로 하여 보족어의 수의성을 개별 어휘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괄호로써 각각의 모든 동사에 표기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Helbig/Schenkel(1973[2])의 주장에 대하여 Nikula(1978)는 다음과 같은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Nikula(1978: 50)에 따르면 "독일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보족어의 수의성과 관련된 오류는 그리 흔하지 않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독일어사용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외국인들은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별 특별한 어려움 없이 특정한 보족어들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보족어의 수의성이 비교적 간단한 원리에 입각하여 작동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미 암시한대로, 이 같은 우리의 생각이 발렌츠 연구에서 처음은 아니다. 실제로 Nikula(1978)는 보족어의 수의성은 반드시 모든 동사에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학습해야하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성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여, 보족어의 수의성을 예측 불가능한 개별 어휘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대부분의 발렌츠 연구자들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일반적으로 보족어의 수의성은 개별동사의 예측 불가능한, 개별 어휘적 특성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일반적인 법칙성이 담겨있다. 이 법칙성을 규명할 수 있다면 수의적 보족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왜 수의적 보족어가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 dass die Fakultativität der E:n [Ergänzungen, K.C.] im allgemeinen nicht als eine idiosynkratische, unvorhersagbare Eigenschaft der eizelnen

> Verben anzusehen ist, sondern dass Regularitäten allgemeiner Art dahinter stecken. Wenn man diese Regularitäten erfassen kann, hat man die Möglichkeit, in einer objektiven Weise festzustellen, ob und warum eine fakultative E [Ergänzung, K.C.] vorliegt.
>
> (Nikula 1978: 17)

이 같은 시도는 기존의 개별 어휘적인 견해에 비하여 어휘부 Lexikon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갖고있다. 즉, 보족어의 수의성을 보편적인 법칙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어휘부에서 모든 개별 동사에 일일이 수의성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곧 우리처럼 독일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족어 수의성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법칙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4. 수의적 보족어의 실현 메커니즘

본 단원에서는 stehen, liegen, sitzen등과 같은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 statische Lokalisierungsverben를 중심으로 이 동사에 수반되는 장소 보족어의 실현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장소 보족어의 수의성은 특정한 인지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장소 보족어의 수의성은 기존의 발렌츠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휘부에 기록된 예측 불가능한 개별 어휘적인 특성으로 언어 습득시 개별 동사별로 각각 습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보편적인 원칙으로부터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 보고자 한다.

4.1. 장소 보족어의 실현 메커니즘

Stehen, liegen, sitzen등과 같은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는 기본적으로 한 대상이 특정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이때 대상이 위

치한 장소는 통사적으로 전치사구에 의하여 상술된다 (Vater 1996[3] 참조).

(40) Daniel steht im Zimmer.
(41) Maria liegt unter dem Tisch.
(42) Hans sitzt neben dem Sofa.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들은 기본적으로 2가 동사로 어휘부에서 다음과 같은 통사적 · 의미론적 발렌츠를 갖고 있다.

(43) SYN-VAL: /nom/pp
(44) SEM-VAL : $\lambda P^{2}_{[ort]} \lambda x^{1}[SLV(P)(x)]$

위의 보기 (43)에서 기술된 통사 발렌츠에 따르면 정적 장소동사들은 통사적으로 1격과 전치사구 형태로 이루어진 두 개의 보족어의 실현을 요구한다. (44)의 의미론적 발렌츠는 정적 장소동사(약칭 SLV)의 두 개의 보족어 중에서 두 번째 보족어는 [장소]라는 의미론적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제시된 발렌츠는 어휘부에 기록된 잠재적 능력으로서의 발렌츠이며 이는 실제의 구체적 실현 형태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아래에서 서술하겠지만 전치사구로 실현되는 두 번째 보족어의 실현여부는 특정한 인지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식구조와 의미구조를 구분하는 Bierwisch(1983, 1987, 1988)와 Bierwisch/Lang(1987)의 소위 "2단계 의미론 모델 das zweistufige Semantikmodell"에 의거하여 위의 보기 (40)-(42)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의미론적으로 다의적이지는 않지만 이 동사들에 내포된 인식적 요소들 konzeptuelle Komponente의 작용 결과에 따라서 동사들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동사에 내포된 인식적 요소들은 해당 인식적 전이과정 konzeptuelle Verschiebung에 따라서 각각 발화의 중심에 놓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미론적으로는 다의적이지 않은 동사들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 될 수 있다.

이를 정적 장소동사들에 적용해보면, 이 동사들은 문맥에 따라서 한 대상이 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즉 특정 대상의 '공간점유' 사실이외에도 공간점유의 '양태 Art und Weise'를 표현할 수 있다. 독일어 정적 장소들의 이 같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이 동사들에 내포된 '공간 점유'와 '양태'라는 인식적 요소들 때문이다. '공간점유'로의 인식적 상술과정은 '공간화 과정 Lokalisierungsprozeß'으로 '양태'로의 인식적 상술과정은 '탈 공간화 과정Delokalisierungsprozeß'으로 명명될 수 있다 (최균호 1999a, 1999b 참조).

'공간점유'로 인식적 상술과정이 일어나면 정적 장소동사들은 특정대상이 특정장소를 점유하고있다는 공간점유를 표현하며 어휘부에 기재된 (43)과 (44)같은 통사적, 의미론적 발렌츠에 상응하는 보족어의 실현을 요구한다[16]. 따라서 이 경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적 규정어의 실현은 필수적이다.

(40) Daniel steht im Zimmer

반면에 공간점유가 아니라 공간점유의 양태로 인식적 상술과정이 발생하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적 규정어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인식구조에서 탈 공간화 과정이 발생하면 원래 어휘부에 보족어로 기록된 장소 부사적 규정어의 실현은 필수적이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정적 장소동사들은 마치 1가 동사처럼 1격 주어의 실현만을 요구한다. 즉, 이때에는 특정 대상이 특정 장소에 위치한다는 공간관계 보다는, 정적 장소동사에 의해 표현된 공간점유의 구체적 양태 (예를 들면 서있음, 앉아있음)가 발화의 중점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정 대상이 어느 장소에 위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45) Daniel steht, während Maria sitzt.

---

16) 그러므로 이 용법을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의 표준적인 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 문장 (45)에서 제시된 실현 형태는 원래 어휘부에 기록된 정적 장소동사의 발렌츠와 차이가 난다. 즉, 정적 장소동사가 요구하는 [장소]라는 자질을 지닌 두 번째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차이는 인식층위에서 전개되는 탈 공간화 과정이라는 인식적 전이과정에 의하여 수정되고 문장 (45)는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17].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해 보면,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에 의해 요구된 장소 보족어의 실현여부는 '공간화 과정', 혹은 '탈 공간화 과정'이라는 인식적 전이과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전이 과정은 어휘부가 아니라, 문맥과 작용하는 인식구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장소 보족어의 비실현 현상을 어휘부에 기록하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발렌츠연구자들의 견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4.2. 분석의 검증

정적 장소동사에 수반되는 장소 보족어의 실현여부는 공간화 과정 혹은 탈 공간화 과정이라는 인지과정에 의존한다는 본 논문의 분석이 타당하다는 사실은 아래의 보기 (46)과 (47)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될 수 있다.

(46a) Maria liegt im Zimmer.
(46b) Maria liegt.

(47a) Köln liegt am Rhein.
(47b) *Köln liegt.

17) 물론 탈 공간화 과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장소 보족어는 실현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간화 과정의 경우와는 다르게 장소 보족어는 본질적이 아닌 추가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즉, 탈 공간화 과정은 장소 보족어의 실현을 반드시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소 보족어의 실현 요구를 중화 시켜서 그의 실현이 필수적이 아닌 선택적으로 만든다.

보기 (46)에서는 동사 liegen에 공간화 과정뿐만 아니라, 탈 공간화 과정의 가능성도 공존한다. 따라서 탈 공간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46b)의 경우 장소보족어가 실현되지 않아도 전혀 하자 없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보기 (47)에서는 보기 (46)과는 다르게 장소 보족어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소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은 (47b)문장은 비문법적이다. 왜냐하면 장소 보족어의 비실현을 야기하는 탈 공간화 과정의 가능성이 (47b)문장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이름인 Köln에는 공간점유의 양태라는 탈 공간화 과정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유일한 인식적 전이과정은 정적 장소동사인 liegen의 경우 한 대상의 특정 장소의 점유라는 공간화 과정뿐이다. 장소동사에서 공간화 과정이 유도되면 장소 보족어의 실현은 필수적이므로 장소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은 (47b)문장은 비문법적이다.

정적 장소동사에 수반되는 장소 보족어의 실현 여부가 공간화 과정 혹은 탈 공간화 과정이라는 인지과정과 관련된다는 본 논문의 분석은 정적 장소동사 뿐만 아니라 동적 장소동사 dynamische Lokalisierungsverben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시도된 분석은 정적 장소동사와 동적 장소동사 전부를 아우르는 장소동사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동적 장소동사인 gehen과 관련된 아래의 보기 (48)과 (49)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48a) Peter geht in die Küche.
(48b) Peter geht.

(49a) Das Packet geht nach Deutschland.
(49b) *Das Packet geht.

보기 (49)에서 동사 gehen에는 보기 (48)에서와는 다르게 탈 공간화 과정의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49)의 주어인 das Packet은 (48)의 주어 Peter와는 달리 탈 공간화 과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

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인식적 전이의 가능성은 공간화 과정이 유일하다. 즉, 동사 gehen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장소이동만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장소 보족어의 실현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49a)에서처럼 장소 보족어가 실현 된 문장은 옳은 문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49b)처럼 장소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옳지 않은 문장으로 해석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의 발렌츠 연구에서는 보족어의 수의성과 관련하여, 동사에 의해 요구된 보족어들이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 das zweidimensionale Valenzmodell과 2단계 의미론 모델 das zweistufige Semantikmodell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서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 statische Lokalisierungsverben에 수반되는 장소 보족어 lokale Ergänzung를 보기로 하여 보족어의 실현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보족어의 수의성은 어휘부의 현상이 아니라 발렌츠와 무관한 특정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되는 발렌츠 실현층위의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에 수반되는 장소 보족어의 수의성은 특정한 인지과정으로부터 규칙적으로 도출된다는 사실을 분석·검증하였다. 즉, 독일어 정적 장소동사의 발렌츠에 의하여 요구된 장소 보족어는 공간화 과정 Lokalisierungsprozeß 혹은 탈 공간화 과정 Delokalisierungsprozeß이라는 인지과정에 따라서 발렌츠 실현층위에서 실제적 실현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분석은 정적 장소동사 뿐만 아니라 동적 장소동사에도 적용 가능하여 장소 동사 전체에 적용 가능한 분석이라는 사실도 검증해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보족어의 수의성을 각각의 동사마다 일일이 학습하여야 하는 개별 어휘적 특성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발렌츠 연구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보족어의 수의성여부를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발렌츠 실현층위에서 특정 보족어가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칙성을 규명한다면, 어휘부에서 개별 동사별로 수의성을 일일이 표기할 필요가 없게된다. 이는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기존의 학습방식에 비하여 어휘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다. 따라서 보족어의 수의성을 규정하는 법칙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외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이고 유용한 학습을 위해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최균호 1999a, 이원적 발렌츠 모델. 독어학 제1집. 한국 독어학회: 서울, 91-118.

최균호 1999b, 독어 동사 wohnen의 발렌츠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7집. 한국 텍스트언어학회: 서울, 487-507.

Ágel, V., 1991. Lexikalische Ellipsen. Fragen und Vorschläge.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9, 24-48.

Ágel, V., 1994. Valenzrealisierung, Grammatik, Valenz. AP Köln Nr. 20 (Neue Folge).

Bartels, G./Pohl, I. (Hrsg.), 1993. Wortschatz-Satz-Text. Beiträge der Konferenzen in Greifswald und Neubrandenburt 1992. Frankfurt a.M.: Peter Lang

Baskević, V., 1987. Zum Einfluß kommunikativ-pragmatischer Faktoren auf die Valenz. Deutsch als Fremdsprache 24, 153-155.

Bierwisch, M., 1983. Semantische und konzeptuelle Repräsentation lexikalischer Einheiten. In: Ruzicka, R./Motsch, W.(Hrsg.), 1983, 61-99.

Bierwisch, M., 1987. Semantik der Graduierung. In: Bierwisch, M./Lang, E. (Hrsg.), 1987, 91-286.

Bierwisch, M., 1988. On the grammar of local prepositions. In: Bierwisch, M./Motsch, W./Zimmermann, I. (Hrsg.), 1988, 1-65.

Bierwisch, M./Lang, E. (Hrsg.), 1987. Grammatische und konzeptuelle Aspekte von Dimensionsadjektiven. Berlin: Akademie-Verlag (= studia grammatica 26/27).

Bierwisch, M./Motsch, W./Zimmermann, I. (Hrsg.), 1988, Syntax, Semantik und Lexikons. Berlin: Akademie-Verlag (= studia grammatica 29).

Blume, K., 1993. Valenz deutscher Verben und (Nicht-)Notwendigkeit (= Theorie des Lexikons 48).

Brinkmann, H., 1971^{2}(1962). Die deutsche Sprache. Gestaltung und Leistung. 2.,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Düsseldorf: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entler, S., Verb und Ellipse im heutigen Deutsch. Zum „Fehlen" verbabhängiger Bestimmungen in Theorie und Praxis. Götebort: Acta Universitatis Gothoburgensis (= Göteborger Germanistische Forschung 31).

Engel, U., (Hrsg.), 1980. Grundzüge der strukturalen Syntax. Stuttgart: Klett.

Engel, U./Schumacher, H., 1978^{2} (1976). Kleines Valenzlexikon deutscher Verben. 2. verb. Aufl. Tübingen: TBL Verlag Gunter Narr (= Forschungsberichte des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 Bd. 31).

Fanselow, G./Felix, S., 1987. Sprachtheorie. Die Rektions-und Bindungstheorie. Bd. 2. Tübingen: Francke (= UTB 1442).

Fries, N., 1987. Nochmals: Valenz und Text. Deutsch als Fremdsprache 24, 205-207.

Gansel, Ch., 1993. Ansätze zu obligatorischer und fakultativer Valenz in kognitionspsychologischer Sicht. In: Bartels, G./Pohl, I. (Hrsg.), 1993, 269-279.

Grebe, P. (Hrsg.), 1973^{3}.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Der Große Duden 4. Mannheim/Wien/Zürich: Duden.

Gréciano, G/Schumacher, H. (Hrsg.), 1996. Lucien Tesnière - Syntaxe

structurale et operations mentales. Akten des deutsch-französischen Kolloquiums anläßlich der 100. Wiederkehr seines Geburtstages Strasbourg 1993. Tübingen: Niemeyer (= Linguistische Arbeiten 348).

Helbig, G., 1982. Valenz - Satzglieder - semantischer Kasus - Satzmodelle.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Helbig, G. (Hrsg.), 1978. Linguistische Studien. Beiträge zu Problemen der Satzglieder.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Helbig, G./Schenkel, W., 1973[2] (1969).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Verben.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Helbig, G./Stepanowa, M.D., 1981[2] (1978). Wortarten und das Problem der Valenz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Heringer, H.-J., 1967. Wertigkeiten und nullwertige Verben im Deutschen.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23, 13-34.

Jacobs, J., 1994. Das lexikalische Fundament der Unterscheidung von obligatorischen und fakultativen Ergänzunge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22, 284-319.

Korhonen, J., 1977. Studien zu Dependenz, Valenz und Satzmodell. Teil I. Bern/Frankfurt a. M./Las Vegas: Lang.

Mrazović, P./Teubert, W. (Hrsg.), 1988, *Valenzen im Kontrast. Unlrich Engel zum 60. Geburtstag.* Heidelberg: Groos.

Nikula, H., 1978. Kontextuell und lexikalisch bedingte Ellipse. Åbo/Turku (= Publications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Åbo Akademi Foundation 35).

Pasch, R., 1977. Zum Status der Valenz. 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Arbeitsberichte 42, 1-50.

Radden, G./Dirven, R. (Hrsg.), 1981. Kasusgrammatik und Fremdsprachendidaktik. Trier: WVT (= Anglistik und Englischunterricht 14).

Rosengren, I., 1970. Zur Valenz des deutschen Verbs. Moderna Sprak 64,

45-58.

Sadzinski, R., 1989. Statische und dynamische Valenz. Probleme einer kontrastiven Valenzgrammatik Deutsch-Polnisch. Hamburg: Buske (=Beiträge zur Sprachwissenschaft 1).

Schröder, J., 1993. Lexikon deutscher Verben der Fortbewegung. Leipzig u. a.: Langenscheidt/Verlag Enzyklopädie.

Schumacher, H. (Hrsg.), 1986. Verben in Feldern. Valenzwörterbuch zur Syntax und Semantik deutscher Verb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Schriften des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 1).

Sgall, P., 1978. Aktanten, Satzglieder und Kasus. In: Helbig, G. (Hrsg.), 1978, 212-233.

Steinitz, R., 1969. Adverbial-Syntax. Berlin: Akademie-Verlag (= studia grammatica 10).

Steinitz, R., 1992. „Modern": Argumentstruktur, „Traditionell": Valenz - Versuch eines Brückenschlags. Linguistische Berichte 137, 33-44.

Storrer, A., 1992. Verbvalenz. Theoretische und methodische Grundlagen ihrer Beschreibung in Grammatikographie und Lexikographie. Tübingen: Niemeyer (= Reihe Germanistische Linguisitk 126).

Storrer, A., 1996. Wie notwendig sind obligatorische Valenzstellen? - Faktoren der Weglaßbarkeit von Valenzstellen im Text. In: Greciano, G./Schumacher, H.(Hrsg.), 1996, 225-238.

Tarvainen, K., 1981. Einführung in die Dependenzgrammatik. Tübingen: Niemeyer (= Reihe Germanistische Linguistik 35).

Tesnière, L., 1959.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Dt.: Grundzüge der strukturalen Syntax. Herausgegeben und übersetzt von U. Engel, 1980. Stuttgart: Klett.

Vater, H., 1978. Probleme der Verbvalenz. Trier: L.A.U.T. (= KLAGE 1).

Vater, H., 1981. Valenz. In: Radden, G./Dirven, R. (Hrsg.), 1981, 217-235.

Vater, H., 1988. Mittelkonstruktionen im Englischen, Dänischen und Deutschen. In: Mrazović, P./Teubert, W. (Hrsg.), 1988, 398-417.

Vater, H., 1996[3](1991). Einführung in die Raum-Linguistik. Hürth-Efferen: Gabel(= KLAGE 24).

Welke, K., 1988. Einführung in die Valenz- und Kasustheorie.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Zusammenfassung

Der Realisierungsmechanismus der fakultativen Ergänzung - Ist die Fakultativität der Ergänzung ein idiosynkratisches Phänomen?

Choi, Kyun-Ho (Korea Uni.)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 der Realisierungsmechanismus der fakultativen Ergänzung aufgrund des zweidimensionalen Valenzmodells und des zweistufigen Semantikmodlells behandelt.

Dabei wurde die Fakultativität der Ergänzung nicht als ein Phänomen im Lexikon angesehen, sondern als ein Phänomen auf der Ebene der Valenzrealisierung, das als Resultat des Zusammenspiels von valenzunabhängigen Faktoren zu betrachten ist.

In der bisherigen Valenzforschung wurde die Fakultativität als eine ausschließlich idiosynkratische Eigenschaft des einzelnen Verbs interpretiert, die man bei jedem Verb erlernen muß. Gegen diese Auffassung wandte die vorliegende Arbeit ein, dass die Fakultativität keine unvoraussagbare idiosynkratische Eigenschaft des einzelnen Verbs ist: Die Fakultativität der Ergänzung kann durch Regularitäten allgemein vorausgesagt werden.

Anhand der statischen Lokalisierungsverben im Deutschen wurde gezeigt, dass die Fakultativität der lokalen Ergänzung von den

konzeptuellen Prozessen abhängt: Bei dem Lokalisierungsprozeß ist die Realisierung der lokalen Ergänzung notwendig. Dagegen ist die Realisierung der lokalen Ergänzung bei dem Delokalisierungsprozeß optional.

Wenn man die Fakultativität durch allgemeine Regularitäten erklären kann, dann ist es nicht nötig, die Fakultativität bei jedem Verb im Lexikon zu markieren. Dadurch kann das mentale Lexikon enorm entlastet werden. Dies bedeutet für deutschlernende Ausländer eine große Erleichterung.